



영산강의 꿈과 생명, 자연과 문화를 담다

김금옥·박철수·송은순·오상조·전지현·채수웅, 사진집 '영산강' 발간
담양 가막골부터 목포 하구언까지 풍경 2년에 걸쳐 작품 180점 담아

무안 몽탄의 영산강 느러지는 한반도 지형을 담았다. 강폭이 넓은 이곳은 오랜 세월 유장한 물길이 만든 승경이다. 능수버들처럼 낭창하게 휘어진 부드러운 자태는 무엇에 비할 바 없이 아름답다.

어떤 이들은 이곳을 '태극문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역경에 나오는 태극(太極)이라는 이 어휘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을 뜻한다. 그만큼 이곳은 상징적인 장소이자 영산강을 대표하는 풍경이다. 해질녘 쏟아지는 햇살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스레 남도인의 성정과 문화와 예술이 겹쳐진다.

영산강의 꿈과 생명, 자연과 문화를 담은 사진집이 출간돼 화제다.

사진가 6명이 최근 펴낸 '영산강 (윤진)'은 발원지 담양 가막골부터 목포 하구언까지를 실담해 담았다. 김금옥, 박철수, 송은순, 오상조, 전지현, 채수웅 등 모두 6명은 2년에 걸쳐 영산강의 풍경을 영글어 담았다. 작품은 모두 180점.



박철수 작 '하순 효산리 고인돌'

박철수 사진가는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2년간 촬영을 했으며 작업까지는 모두 3년이 걸렸다"며 "책에는 개인당 약 30여 점씩이 수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산강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들이 숨겨져 있었는지는 몰랐다"며 "새벽에 촬영을 주로 했는데 그때마다 수려한 풍경에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영산강을 주제로 사진집을 내기로 한 것은 오상조 전 광주대 사진학과 교수와의 인연 때문이었다. 오 교수가 지금은 디지털 갤러리로 바뀐 운주사 천불전탑 사진문화관 관장으로 있을 당시 사진 강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난 것.

박철수 사진가는 "사진을 배우면서 놀란 것 중 하나는 의외로 '영산강'을 주제로 한 사진집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라며 "누군가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단초가 돼 6명이 의기투합을 했다"고 언급했다.

사실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강을 근거로 태동했다. 세계문명의 발상지가 모두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호남의 젖줄, 영산강을 근거로 남도인들의 삶과 기질, 문화, 예술이 형성됐음은 분문가지다.

사진집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먼저 1부 '영산강은 흐른다'는 발원지인 가막골 용소에서부터 목포 하구언을



전지현 작 '나주 삼한지'

아우르는 136km의 중심 흐름을 토대로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담았다. '황룡강 장목 습지', '광주호', '나주 구진포' 등을 만날 수 있다.

2부 '영산강 사람들의 삶과 문화'는 오늘을 살아가는 강변 사람들에 초점을 맞췄다. '영산포 흥어의 거리', '광주 서창만드리축제', '광주 무등산 샘굿' 등 생생한 장면이 수록돼 있다.

영산강 8경을 볼 수도 있다. 3부에서는 '영산호', '무안 식영정', '나주 석관정', '나주 죽산

보', '금성상운', '광주 승천보', '광주 풍영정', '담양 습지'는 오래도록 눈에 담아 두고 싶은 절경들이다.

마지막 4부는 '오상조의 영산강 에필로그'로 구성돼 있다. 흐린 날 강에서 낚시를 하는 강태공의 모습을 비롯해 복사꽃이 핀 언덕의 풍경, 배꽃이 흩날리는 장면은 서정적이면서도 여운을 준다.

'타오르는 강' 등 영산강을 모티브로 작품을 썼던 문순태 소설가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민중 지향

적 정서는 정치적 탄압과 소외 속에서도 찬란한 영산강 문화를 꽃피웠다. 소외당하고 빼앗기고 짓밟힘을 당해온 민초들의 집약된 한은 판소리로 표출되었고 선비들의 은일과 서정은 가사문학과 서화를 발전시켰다"며 "이제부터는 영산강의 인문학적 가치와 그 비전을 말할 때이다. 이 시대의 중심적 화두는 강을 통하여 삶의 가치를 인식하고 배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OST 저장 존 윌리엄스·한스 짐머 음악을 감상한다

'브라스마켓 시네콘서트'
10일 북구문화센터

'스타워즈', '슈퍼맨', '이티' OST 등으로 할리우드 영화 음악사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유하는 존 윌리엄스. 그의 아성을 위협하며 '라이언 킹', '미션임파서블', '인터스텔라', '탑건:매버릭' 등 섬세한 영화음악의 정수를 보여주는 한스 짐머.

북구문화센터는 영화음악계 두 거장의 음악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을 연다.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북구문화센터에서 펼쳐지는 '브라스마켓 시네콘서트'가 바로 그것.

공연은 '자연', '자유', '전쟁'과 '우주', '모험'의 총 다섯 개 테마에 맞는 영화음악 OST를 금관 오중주단 브라스마켓(대표 나용준)이 들려준다는 계획이다.

먼저 자연 테마는 '쥬라기 공원' 메인테마와 '라이언 킹 OST 하이라이트 버전'을 감상할 수 있다. 자유 테마는 유대인 학살을 이야기한 '썬 들러리스트 메인테마'와 절정기 로마의 게르마니아 정벌기를 담은 '글래디에이터' OST 중 'The Battle'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금관 오중주단 '브라스마켓.'

<북구문화센터 제공>

전쟁 테마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중 'Hymn to the fallen'과 '진주만' 중 'Tennessee'가, 우주 테마는 '스타워즈' 중 'Imperial March'와 '인터스텔라 OST 하이라이트'를 금관앙상블 버전으로 들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해리포터' OST 중 '프롤로그 헤드 워 테마'와 '캐리비안 해적' OST 중 메인테마를 연주한다. 여기에 브라스마켓 리더 나용준이 공연 중간마다 해설을 곁들인다.

한편 브라스마켓은 2006년 창단 이후 '퍼포먼

스' 보다 '아카데미'한 앙상블 레퍼토리 개발에 초점을 둔 단체다. 지난 17년간 락서 콘서트, 영화 OST 녹음 등을 선보여 왔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공연은 전체 관객의 30%를 문화소의계층 초청 좌석으로 배정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공연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전석 1만 원. 북구문화센터 홈페이지와 티켓링크 예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오로지 아이들 '행복했던 기억들'

남정숙 개인전, 11~21일 송정작은미술관

남정숙 화가는 최근 손녀딸이 생겼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출산율이 저조한 현실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가 생겼으니 말이다. 아이를 낳지 않은 풍조가 유행처럼 번지는 시대라지만, 혹여 아이들을 모티브로 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출산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남 작가가 '행복했던 기억들'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전시를 갖는다.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송정작은미술관.

이번 전시에 작가는 모두 35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전시는 모두 4계절로 나눠 행복했던 아이들의 모습을 초점화했다. 그네 타는 모습을 비롯해 눈사람 만드는 모습, 바닷가 백사장에서 노는 모습 등 다양한 장면을 화폭에 담았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을 그림마다 배치했다. 아이들뿐 아니라 요즘은 애완동물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토끼와 강아지, 오리, 새들도 그림마다 등장한다.

작가는 그동안 20여 년간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했지만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봤다. "순간순간 그림으로 남기고 싶은 행복할 시간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번 전시는 그런 삶의 지점에서 풀



'사계'

어내는 작가만의 남기고 싶은 풍경들이다.

남 작가는 "수십 년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생활하면서 소통하고 공유했던 즐거움과 예쁜 두 딸을 키우면서 느꼈던 행복과 소중한 기쁨들, 그 동화 같은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오로지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기쁨을 나만의 고유한 색채와 필치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